

포스트모던(Postmodern) 패션컬렉션(Collection)

문 선 정*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

이 혜 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의류학과 교수)

이 현 정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패션 컬렉션은 의류업체나 디자이너가 특정 시즌을 목표로 제작한 의류 디자인을 바이어와 언론계에게 진파하는 ‘패션 브랜딩’ 과정으로서 패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패션 쇼’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드만(Winter & Stanley Goodman)은 패션쇼란 패션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압도적이며 생동감 있고 움직이는 형태로 상품을 보여주는 촉진적 매개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패션 컬렉션이 개최되기까지의 과정과 컬렉션을 통하여 얻는 효과는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패션산업의 상업성이 결합된 패션산업의 매카니즘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패션 컬렉션은 의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할 뿐 만아니라 매스미디어를 통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다음의 유행을 예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패션컬렉션은 주로 의상을 상품화하는 패션산업의 판매촉진의 수단에 중점을 두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사회를 맞이하여 소비자들은 상품의 기능적 가치보다 의미와 상징이 담긴 정서적 문화적 가치를 더욱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패션산업계에서도 창의적 ‘이미지 생산’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컬렉션을 통해 기존의 인식을 파괴하는 창의적인 실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연출기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패션컬렉션은 ‘패션 브랜딩’을 위해 중요한 문화생산 과정으로서 새로운 인식과 의미를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특히 포스트모던 이후에 나타난 패션 컬렉션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넘어서 패션의 새로운 이슈와 이념을 창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패션의 아이디어를 재강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 과정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교육계나 학계에서 패션컬렉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을 주제로 하여 특히 포스트모던 프리젠테이션 기법의 특성에 대해 논함으로써 한국의 패션컬렉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계 4대 컬렉션을 살펴보면 파리 컬렉션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실험, 런던 컬렉션은 전위적이고 전통 파괴적인 아방가르드 형식의 개발, 뉴욕컬렉션에서는 최근 젊은 디자이너들의 영입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밀라노 컬렉션은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컬렉션의 특성

상 새로운 연출을 찾아보기 어렵다. 컬렉션의 새로운 기법 개발은 주로 프랑스 디자이너, 영국디자이너, 일본디자이너, 그리고 최근에는 벨기에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2. 포스트모던 컬렉션의 주제에 있어서 단순한 쾌락과 흥미유발에 치중하기 보다는 디자인의 내면 의식을 표출하고자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즉 디자인의 의무, 사회적 봉사, 환경적 의식, 미의 개념의 확대 등의 시대적 주제를 은유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두된 사회진반의 불안, 경제적 위축, 환경파괴에 대한 긴장감, 자아 정체성의 붕괴, 기존가치관에 대한 회의 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제 대중이 패션 컬렉션을 보는 관점은 곧 유행의 생성을 의미하며 패션쇼에 나타난 이미지는 대중이 소비하는 문화상품의 하나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패션쇼는 다원화된 각도에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중문화로 부각되고 있다.
4. 새로운 기법의 공통된 특성은 기존의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 '해체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가장 큰 해체는 '장소성의 파괴'이며, 새로운 디자인 주제에 적합한 의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컬렉션을 개최한다. 이는 모더니즘에서 추구했던 '절대적인 완성의 찬양'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의 파괴'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5. 과학과 예술의 결합, 순수예술 형식의 도입, 대중과의 만남 등 다양한 매체나 장르의 유기적인 접목과 실험적인 형식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퓨전형식'을 보여주고 있다.